

2022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플레이엄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화성시문화재단

PLAYEUM PLAYEUM

2022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플레이엄

P L A Y E U M

화성시문화재단

ART +
PLAY +
MUSEUM =

2022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플레이엄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ART +

PLAY +

MUSEUM =

2022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플레이엄

PLAYEUM

CONTENTS

4 1. 시작

- 화성시문화재단 소개
- 예술지원센터 소개
- 사업 개요
- 운영 일정

9 2. 열두가지 이야기

- 공간과 나, 시각적으로 생각하기 • 엠바디어스
- 나의 이야기가 소리가 되어 • 진유영
- 느리게 가는 엄마 • 예술로
- 몸의 지도 • 김보현
- 미시적랩 • 김지현, 안길원
- 사라진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 극단 화성에서 본 지구
- 세대공감 예술비스트로 • 예술비스트로
- 손으로 말하다 • 구디프렌즈 이야기실천협동조합
- 아티스트북 만들기 • 김선호
- 외출, 나를 위한 특별한 예술 여행 • 김진경, 김유정, 조경향
- 우정하다; DO IT • 작당모의
- 플레이버스 리본 • 아트핑거스

* 열두 팀의 인터뷰 영상은 화성시문화재단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2 3. 함께

- 사전 간담회와 사업 설명회
- 중간워크숍
- 전문가 자문과 특강
- 결과워크숍

89 4. 다시, 시작

- Let's Playeum

시작

PLAYEUM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플레이엄

ART + PLAY + MUSEUM = PLAYEUM

화성시문화재단 소개

(재)화성시문화재단은 화성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만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예술 활동 지원은 물론 공연, 축제, 전시 등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화성시립도서관, 화성·반석·누림 아트홀, 동탄아트스페이스 등 운영시설과 생활권 문화예술 서비스로 화성시 전역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지원센터 소개

예술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
고자 2021년 10월 재단 내 예술지원센터가 출범하였습니다.
예술지원센터는 국내 문화예술계 변화 흐름에 발맞춰 지역예술인
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원에 대해 고민합니다.

관내 예술인의 자립, 창작,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예술인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화성에서 성장한 예술가와 그의 작업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더 나은
문화예술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술인지원팀’

연구, 자립, 기반 지원을 통한 예술인들의 성장 발판 조성

‘예술창작지원팀’

지속 가능한 예술창작 지원과 공간 운영

‘예술교육지원팀’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기획·지원사업 운영

사업 개요

플레이엄(PLAYEUM)은 Art Play와 Museum의 합성어로
예술가와 시민이 작품(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노는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합니다.

사업명

2022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플레이엄>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프로그램 운영 기간 5월 ~ 11월

교육대상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화성시민

지원금

263,000천원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예술교육자	운영 지역
공간과 나, 시각적으로 생각하기	엠바디어스	반송동, 새솔동, 영천동
나의 이야기가 소리가 되어	진유영	기안동, 반송동
느리게 가는 엄마	예술로	청계동
몸의 지도	김보현	목동, 봉담읍, 새솔동, 영천동, 팔탄면
미시적랩	김지현, 안길원	팔탄면
사라진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극단 화성에서 본 지구	남양읍
세대공감 예술비스트로	예술비스트로	양감면
손으로 말하다	구디프렌즈 이야기실천 협동조합	봉담읍
아티스트북 만들기	김선호	병점동, 영천동, 반송동, 온라인
외출, 나를 위한 특별한 예술여행	김진경, 김유정, 조경향	반송동
우정하다: DO IT	컬처플레이트	우정읍
플레이버스 리본	아트핑거스	매송면, 기산동

운영 일정

1월	사전 간담회 3회	7월	중간 워크숍 프로그램 사진 촬영(~10월)
2월	프로그램 공고	8월	프로그램별 전문가 자문 문화예술교육 및 회계 정산 특강
3월	사업 설명회 2회 공모, 심의, 선정	9월	프로그램별 전문가 자문
4월	사전 워크숍, 교부 설명회 지원금 교부	10월	
5월	프로그램 운영 관리(~11월) 현장 모니터링(~11월)	11월	프로그램 종료
6월		12월	결과 워크숍 지원금 정산

열두가지 이야기

PLAYEUM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플레이엄

ART + PLAY + MUSEUM = PLAYEUM

공간과 나, 시각적으로 생각하기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는지 '공간감을 형성하는 몸'을 중심으로
함께 질문하고 탐구하는 공간 설치 프로그램



가족

- # 6월 4일 ~ 11월 20일 총40회
- # 반송동 예술실험실
- # 새솔동 송린이음터
- # 영천동 호기심연구소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예술교육자 인터뷰 엠바디어스 최종희

자기소개

올해 2월에 화성에 엠바디어스라는 예술단체를 설립한 최종희 작가입니다.

공간과 나, 시각적으로 생각하기

우리 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컬러는 무슨 색인가요?

스카이블루, 하늘색이죠. 포용력이 큰 예술단체가 되고 싶고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넓은 마음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었으면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2022년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나를 발견하는 시간. <공간과 나, 시각적으로 생각하기>인데 나를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치미술, 시각미술이라는 테마로 접근하는 수업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

테이프로 공간 설치를 하는 수업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테이프를 감더라고요. 학생과 제가 벽이 허물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기뻐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부모님들이 보통 어머니가 적극적이고 아버님들은 대부분 외적인 존재처럼 있으세요. 그 중 한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더니 갑자기 테이프를 자기 몸에 감았어요. 큰딸이 ‘아빠 왜 그래?’라고 하면서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아이한테 설명을 했죠. 아빠도 자기표현을 하는 거더라고요. 아마 이 아이는 아빠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을 거예요. 그때부터 딸이랑 아들이 함께 아빠 몸에 테이프를 감으며 즐거워했어요. 아버지의 그 행동은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표현일 수도 있고 자기 해소일 수도 있어서 의미있었어요. 보통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표현은 억압에 대한 표현이 대부분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행동은 외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일 수가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행위를 하며 나름의 승화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아이들이 이해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기억에 남는 참여자는?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학습이 아니라 놀고 부시면서 진행돼요. 예를 들어 조그만 박스 큰 박스, 박스 수 백 개를 아이들한테 접게 만들어요. 접은 박스를 활용해서 성도 만들고 벽도 만드는데, 4학년 덩치 큰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처음부터 난 다 때려 부실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들어왔어요. 아이에게 협동에 대해 우선 일러주고 행동반경이 큰 그 아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업을 참여하게 했더니 아이가 변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되게 고마워했어요. 마지막 날 그 아이가 주머니에 너무 오래 넣어놓고 다녀서 다 부서진 초콜릿 바를 가방에서 꺼내주는거예요. 바자회인가 어디에서 샀대요. 선생님 주려고. 그런 게 기억에 남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같이 수업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느끼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니까 아 내가 저 아이랑 뭔가 교감을 했구나 생각해요.

갖고싶었던 능력은?

참여성이요. 참여자들이(특히 아이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따라오지 않고 항상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안돼, 하지마’라는 말을 하지 않고 기다려 주는 것 그래서 아이의 장점을 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처음 시작할 땐 홍보가 참 쉽지 않았어요. 저는 참여자가 없어서 시작 일을 늦췄어요. 신청했던 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수업의 의미 이야기하고 전하다보니 그 분들이 뭐 맘 카페 같은 곳에 홍보 해 주시기도 했죠. 처음에 프로그램을 위한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을 때 두 세달 동안은 저 혼자였는데 지금은 53명 정도 부모님들이 들어와 계시고 마지막 프로그램은 참여하신 분들이 홍보를 해주셔서 수업을 하나 더 늘렸어요. 화성은 도시가 분산되어 있잖아요. 이번년도는 새솔동과 동탄을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 시작 한다면 홍보라던가 또 거기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플레이엄에 참여하며 얻은 것과 잃은 것

잃은 것은 주말이요. 프로그램을 주말에 진행했기 때문에 주말을 온통 잃었고. 얻은거라면 며칠 전에 화성으로 이사 왔어요. 화성에 대한 이해와 화성을 바라보는 마음을 얻어서 화성 좀 연구대상으로 삼아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성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맡으며 제암리 등 역사적으로 깊이 있는 장소도 알게되고 공간적인 특성도 굉장히 재밌어서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플레이엄이란?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기회였고요. 저도 작가이다 보니 계속 작업을 해왔는데 교육과 연계하고 과학을 연구하며 아이들이나 노인 대상으로 가치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최근에는 작업 방향도 이제 그 쪽으로 가고 있어서 플레이엄을 통해 마음이 이렇게 거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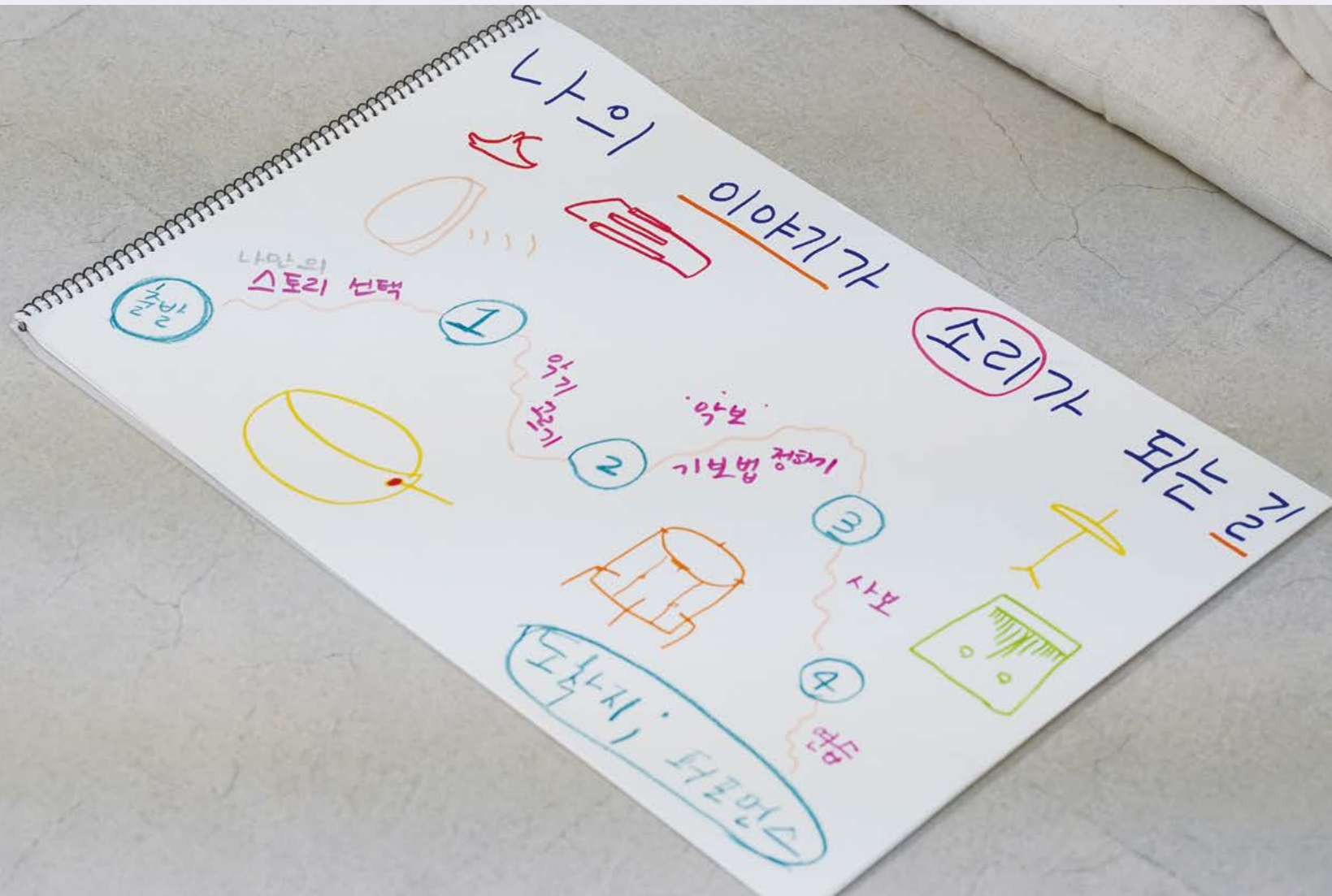


앞으로의 계획?

엠바디어스라는 예술단체를 만들었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지속성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획과 교육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펼치려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해서 조금 더 단단한 단체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소리가 되어

손과 악기, 사물을 도구로 각자의 삶을 소리로 표현 하는,
악보를 쓰고 퍼포먼스로 창작하는 프로그램



성인

- # 5월 31일 ~ 10월 2일 총34회
- # 기안동 복치는고양이(개인작업실)
- # 반송동 예술실험실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소리가 되어

진유영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기를 중심으로 여러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진유영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소리가 되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소리가 되어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컬러는?

하얀색입니다. 이게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색이든 하얀색 위에 칠해지면 본인의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것도 다 소화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나요?

저는 주로 악기 소리 혹은 사물의 어떤 소리들 그리고 버려져 있는 쓰레기, 그 물성이 가지고 있는 소리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소리를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과정에서 굉장한 즐거움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내 주변 이웃 분들도 한번 경험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예술 활동이 좀 더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요런 마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간략하게 말하면 사람이 다 다르듯이 각자가 가진 삶을 소리로 표현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퍼포먼스를 창작을 하고 악보를 쓰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2022년 프로그램은 어떠셨나요?

의미있고 보람되었다. 참여자분들의 이야기가 소리가 되는 과정과 결과를 옆에서 지켜보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

참여자 분들이 처음에는 막 못한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 하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 창작 퍼포먼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정말 너무 기뻐요. 제가 악기 소리를 내면서 느끼는 그 감동 그리고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나만의 생각과 감각들 그것을 참여자분들도 느끼셨을 때였는데 예를 들면 싱잉볼이라는 악기를 활로 긋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시면서 악기와 내가 활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정말 너무 기뻐고 창작 퍼포먼스 악보 막 이렇게 적으실 때 그 모습 보는 것도 기뻐던 거 같아요.

기억에 남는 참여자는?

생각해봤는데요. 절대로 한 명만 꼽을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모두 다 기억합니다.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작년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악기 주파수로 대화를 하는 거 같다고 하셨던 참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갖고 싶었던 초능력이 있다면

참여자분들의 생각을 꿰뚫는 그런 초능력 정말 초반에는 갖고 싶었습니다. 독심술!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참여하고 있나, 재미가 없으신가, 재미가 있으신가, 어렵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수업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3월로 돌아간다면?

힘들겠지만 잘 할 수 있다 괜찮다. 장기적인 예술 교육을 진행 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혼자 이끌어가는 것 때문에 좀 부담이 됐었던 거 같아요. 하지만 참여자분들의 퍼포먼스를 보며 <플레이엄>에 참여하길 잘했다 생각합니다.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그냥 혼자서 수업 준비하고 운영하고 영수증 모으고 사진 찍어야 하는데 까먹고 그래서 혼자 해야 해서 조금 버거웠어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웃음)

플레이엄에 참여하며 얻은 것과 잃은 것

얻은 것은 열린 시각 잃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주로 공연을 하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관객을 의식하긴 하지만 저에게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술교육 과정은 예술을 전공하지 않은 보통의 분들 대상으로 소통을 해니까 어떻게 하면 참여자들이 좀 더 쉽고 접근하기 편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각이 좀 열린 것 같습니다. 제 개인 활동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다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나에게 플레이엄이란?

예술가로서 나의 삶을 가장 가까이 공유할 수 있는 통로. 제가 하고 있는 활동 분야가 주로 현대음악이고 나아가서 뮤직테아터 퍼포먼스 요런 장르인데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한다거나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장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재밌다고 느껴지고 한번 보면 더 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 이런 거 해요” “이거 재밌어요” “같이 해볼래요?”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예술교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 삶과 예술 활동을 가까이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공유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지금처럼 연주하고 공연 기획하고 퍼포먼스 만들고 때때로 이렇게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진행하고 지낼 것입니다. <플레이엄>을 한 번 해 보니까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들어서 역력이 있을 때마다 좀 더 발전 시켜보려 합니다. 이것을 평생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엔 대상자가 성인이었었는데 다른 연령대와의 함께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한 번 열심히 만들어서 활동해 볼 예정입니다.

느리게 가는 엄마

자녀를 양육하며 나를 잊고 사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엄마들의 예술 감수성을 찾는 공예 프로그램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

5월 9일 ~ 11월 18일 총42회
청계동 파티엔스터디

세 번째 이야기



세 번 째 이 야 기

느리게 가는 엄마 예술로

자기소개

예술로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진입니다.

느리게 가는 엄마

우리 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컬러는 무슨 색인가요?

민트. 시원한 박하향이 나는 팀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2022년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느리게 가는 엄마>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영천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을 키우면서 나를 잊고 사는 엄마들에게 공예를 통해 내 안의 밝은 빛을 찾는 방법을 함께 하는 공예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참여자는?

19살의 장애 아이를 키우는 참여자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참여자분들의 자녀 나이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데 우리 프로그램의 정신적 지주로 아이를 키우며 있었던 일들을 먼저 나눠 주시고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술로팀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

순간, 순간이 기뻐는데요. 함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와 힘이 된다고 말씀해주셨던 순간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느리게 가는 엄마에 참여하는 시간만큼은 오롯이 나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에 대해 묻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갖고 싶었던 (초)능력은?

순간이동이에요. 매 시간 다양한 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준비할 재료가 굉장히 많고 무거워서 옮기는데 순간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22년 3월(플레이엄에 지원하던 시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도전하길 잘했다’라고 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처음 도전하는 지원사업이라 3월엔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함께 하시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서로 친밀하고 긴밀하게 도와주셔서 힘든 점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도 돌아간다면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플레이엄에 참여하며 얻은 것과 잃은 것

얻은 것은 좋은 사람들과 잃은 것은 어께요.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참여자들과 아직도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제가 사는 화성시, 그리고 사는 지역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함께 하며 힘이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사람을 얻은 것이 가장 큼니다.

그리고 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 몸을 많이 숙이거나 어깨 사용하며 ‘아, 오십견이 왔구나’ 느낍니다. (웃음)

나에게 플레이엄이란?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곳. 앤디 워홀이 ‘일상을 벗어난 모든 것이 예술’이라고 말했다더군요. 플레이엄을 진행하며 저는 모든 일상이 예술이 되었습니다. 참여자분들도 그랬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느낀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예술로’가 현재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상예술,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곳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더욱더 필요성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예술로 함께 내 안에 감춰졌던 빛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몸의 지도

자신의 몸을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움직임의 길을 찾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신체 프로그램

초등학생, 성인, 노인

- # 5월 10일 ~ 11월 23일 총52회
- # 목동 동탄목동이음터
- # 봉담읍 동화마을 6단지
- # 봉담읍 LH3단지
- # 새솔동 송림이음터
- # 영천동 동탄다원이음터
- # 영천동 LH2단지 작은도서관
- # 팔탄면 가재5리 노인회

네 번째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몸의 지도 김보현

자기소개

저는 무용가 김보현입니다. 무용예술교육 그리고 펠튼크라이스 교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도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컬러는 무슨 색인가요?

답블루. 일단 천천히 고요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몸을 매개로 사람들과 관계하는 모습에서 그 색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2022년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몸의 지도〉라는 프로그램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알아보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움직임의 길을 찾고 그걸 바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의 몸을 감각하는 방식을 통해서 새롭게 또는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어떤 관념이 나 누구의 지도, 지시 없이 자유롭게 움직임으로 표현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

참여하시는 분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움직임으로 각자의 고유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기뻐했습니다. 제가 마치 관객이 되어서 그들의 움직임 표현을 볼 때 가장 기뻐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활짝 웃으면서 그리고 몸에 어떠한 구속없이 표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참여자는?

여러 대상을 통해서 〈몸의 지도〉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 70~80대가 되시는 어르신들 프로그램에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내에 누운 자신의 모습 가장자리를 그리는 활동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일



어서서 그려진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죽을 때도 이와 같은 모습일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질문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들게 했어요. 프로그램 발전 방향과 아이디어 등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생각들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갖고싶었던 (초)능력은?

저에게 분신술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진행하지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신술을 갖고 싶습니다. 혼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계획하던 것 이외의 변수들이 많은 거예요. 사진 촬영이라던가 한 분 한 분의 몸을 움직임을 관찰하고 함께 피드백 해드리는데 있어서 여러 개의 눈이 필요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목격하고 조금 더 깊이 있고 밀도 있게 다가가는 순간이 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2년 3월로 돌아간다면?

짧게 표현하면 '위워워~'입니다. 쉽고 편하게 조금 더 힘을 빼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가 계획한 것을 가용 범위를 넓히고요. 그리고 횟수도 조금 더 줄이고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활용하고 싶어요.

플레이엄에 참여하며 얻은 것과 잃은 것

우선 잃은 건 없습니다. 얻은 것은 <플레이엄>을 통해 다양한 분들의 몸과 움직임을 만났고 그 분들의 그 한 순간 한 순간이 저에게 데이터 베이스가 되어 배움을 얻었습니다.

나에게 플레이엄이란?

시작. 제가 예술가로서 몸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예술적으로만 접근했는데 <몸의 지도>라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몸을 매개로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작업하는 시간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키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몸의 지도>라는 프로그램 안에 녹여져 있는 신체 자각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탐구하고 발전시키고 움직임을 친숙하게해서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저의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미시적랩

예술, 과학, 인문학, 문학을 아우르는 접근을 통해
우리의 감각과 환경을 새롭게 이해하는 프로그램

청소년, 성인

7월 3일 ~ 11월 5일 총36회

팔탄면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내 ACT GROUND

다섯 번째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

미시적랩 김지현, 안길원

자기소개

저는 시각예술하고 예술교육활동 하고 있는 안길원이라고 합니다.

미시적랩

우리 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컬러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가능해서 RGB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미시적랩〉은 일상 경험을 시각예술 활동으로 전환해 보는 일상적 경험의 시각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팀은 저와 김지현 작가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둘 다 창작 활동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항상 주변을 관찰하고 그에대한 궁금증에서 작업을 시작해요. 〈미시적랩〉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일상의 소소한 주제를 가지고 개성과 창의력을 살려서 표현을 해보는 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기본 드로잉, 페인팅으로 몸풀기를 시작하고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며 이론적 배경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참여자의 일상에서 예술적 감수성을 끌어내고 재료나 소재 제약을 두기 않는 자유로운 활동을 합니다.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

참여자분들이 즐거워하실 때가 가장 기뻐요. 사실 재미를 느껴서 특별한 목적 없이 열심히 하는 건 어디에도 비길 수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상당히 좋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죠.

기억에 남는 참여자는?

참여자 중에서 초등학교 작가가 있었는데 자기 작품 세계가 상당히 확고해서 항상 늘 심각하게 작업에 대해 고민했어요. 작업도 상당히 재미있게 잘 나왔어요. 그 친구가 종이로 의상 같은 걸 만들어서 직접 착용을 해봤거든요. 그 작품이 상당히 다양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좀 기억에 남아요.



갖고싶었던 능력은?

축지법 같은 거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팔탄면에서 집이 사실 조금 멀어 가지구(웃음)

2022년 3월로 돌아간다면?

타임매니지먼트를 좀 잘해보자. 사실 제가 좀 게으른 편이어가지고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준비할 때에도 부지런을 못 떨었던 거 같아요.

플레이엄에 참여하며 얻은 것과 잃은 것

얻은 것은 다양한 그 참여자들의 피드백. 프로그램 안에 실험적인 시도가 있어서 시작 전에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피드백을 받고 확신이 생기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적은 미술이론에 관한 것을 전

달을 했을 때 반응이 궁금했어요. 피드백에 영감을 받아서 작업 활동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잃은 것은 의문점들. 시작 전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됐어요. 긍정적으로 잃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플레이엄이란?

사실 생각만 하고 있던 것을 실제로 실현시켜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의 계획?

〈미시적랩〉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하고 텍스트로 정리 해볼 생각입니다.



사라진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남양읍의 지역 역사 콘텐츠를 지역민과 함께
연극 <남양도호부사 납시오>로 만드는 공연 예술 프로그램



통합

5월 22일 ~ 11월 6일 총36회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여섯 번째 이야기

사라진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극단 화성에서 본 지구. 한혜수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극단 화성에서 본 지구 대표 한혜수라고 합니다.

우리 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컬러는?

모든 색을 다른 색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예술 단체니까 특정 컬러를 가진다고 투명해서 모든 색을 다 비춰내고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2022년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화성시 서남부권을 문화 소외지역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와 공급이 적은 남양에서 <사라진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부제는 <마당놀이 남양도호부사 납시오>라는 공연 교육 프로그램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긴 호흡으로 시민연극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극놀이로 시작해서 남양의 역사를 담은 공연을 올리기 위해 대사를 외우고 노래를 하고 안무를 연습하고 소품까지 직접 만드시며 남양에 대해 또 문화예술에 대해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보신 관객들도 지역역사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리라 믿습니다.

참여자분들이 스스로 우리는 남양의 연예인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축 남양연예인팀 탄생”이라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참여하는 분들이 처음엔 대사를 무조건 외우시다가 그 의미에 대한 것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셨을 때인 것 같아요. 저희가 화성시 남양에 일제강점기 때 사라졌던 남양 도호부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은 이야기였어요. 자연스럽게 의미 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마을의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한 식견을 가지게 토론하는 것을 보고 ‘아! 이 프로그램을 만들길 잘 했구나’라고 기뻐네요.



여섯 번째 이야기

기억에 남는 참여자는?

6개월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기억에 남지 않는 참여자를 생각하긴 어려운데요. 저희는 부부 참여자도 두 팀이 있었고 닭살 커플도 계셨고 또 모자 커플도 있었어요. 그중에 5학년짜리 김지후라는 남학생이 있는데 어른들은 대사를 잘 외우지 못해 찢찢매시는데 이 친구는 그냥 누르면 대사가 튀어나와요. 연습할 시간도 많지 않았고 혼자 게임하고 있다가도 자신이 나오는 장면이 되면 노래도 대사도 툭툭 잘 하더라고요. 공연일에 다다랐을 땐 본인들이 필요성을 느끼시고 프로그램 진행 시간 외에도 따로 모여 연습을 하셨어요. 10월에는 다들 일을 마치고 오후 8시부터 계속 연습을 하셨는데 굳이 자기도 따라 나와야 한다면 매일 나왔던 우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친구 김지후 학생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갖고싶었던 능력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기. 왜냐면 다른 프로그램은 모든 참여자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진행하잖아요. 저희도 연극놀이를 하거나 노래와 안무를 배울 땐 흐름이 같았지만 장면 연습을 할땐 어떤 참여자는 많은 장면 출연하거나 대사가 많고 다른 참여자는 적게 나오니까 자꾸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럴 때 그 분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어떤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2022년 3월로 돌아간다면?

사실 지나고 나니까 무모한 도전이었고 조금 힘들긴 했어요. 너무 긴 호흡의 프로그램이라서요. 그런데 엇그제 공연을 마치고 나니까 3월에 나로 다시 돌아가도 무모한 도전을 또 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저희 프로그램이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매주 일요일에 진행하다보니 처음의 마음이 짐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들 경조사도 많고 이벤트도 생기니까요. 이렇게 살짝 느슨해지는 타임이 생기더라고요. 이때 어떻게 다시 추스려야 할까 생각하며 좀 힘들었는데 이제 공연을 만들기 시작하고 본인의 배역과 역할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나아졌어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대사나 안무를 버벅거리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시간을 내서 프로그램을 더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더라고요.

플레이엄에 참여하며 얻은 것과 잃은 것

제가 2015년에 극단을 창단 하며 목표가 화성시 지역의 역사를 모티브로 한 지역연계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보자였어요. 사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많이 진행했는데 공연

사라진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프로그램을 만들 기회가 없었어요. 플레이엄을 통해 꿈꿔왔던 작은 퍼즐 한 조각이 맞춰진 것 같아서 그게 아주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잃은 건 시간과 체력이네요. 제 목소리 지금도 걸걸걸 하죠. 성대결절이 와서 제 체력이 살짝 빠졌했습니다.

나에게 플레이엄이란?

무모한 도전이었다. 이 무모한 도전이 이제는 체계화가 되었고 시작을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켜서 시민들과 예술가가 같이 즐길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했죠.

앞으로의 계획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딱딱한 타이틀이긴 하지만 그걸 얼마든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예술가와 시민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자꾸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봐야겠다 하는 또 제 무덤을 파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대공감 예술비스트로

가족 삼대가 함께 자연 속에서 놀며 자연스럽게 예술을 익혀가는
국악, 미술 융·복합 놀이교육 프로그램



통합(삼대가족)

5월 7일 ~ 11월 26일 총30회

양감면 솔미작가촌



일 곱 번 째 이 야 기

세대공감 예술비스트로 예술비스트로

자기소개

화성시 양감면에서 미술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최범용입니다.
솔미작가촌 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컬러는?

연두. <세대공감 예술비스트로> 프로그램 진행 장소인 솔미작가촌이 산과 잔디로 둘러싸여 있기도 하고 어린이들과 가족들의 미소가 가득했던 프로그램이라 연두가 떠올랐습니다.

2022년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기존에 아카데미적인 교육의 취지를 벗어나서 '안 돼'의 개념을 버리고 싶었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왔지만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자연 속에서 놀면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익혀가는 시간으로 국악과 미술이 결합한 놀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의 프로그램은 참 맛나게 잘 놀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비스트로'가 이탈리아의 작은 동네 식당이라는 의미거든요. <플레이엄>을 통해 진행한 프로그램은 예술이라는 음식을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마음대로 맛있게 먹고 다 먹고 나서 참 잘 먹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더 있다가 가면 안 돼요?" 라고 할 때가 제일 기뻐어요.

기억에 남는 참여자는?

민서라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참여 했어요.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프로그램에 두고선 긴 시간 함께했죠. 솔미작가촌에 오면 해방된다는 느낌,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아서 빠지지 않고 오게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갖고싶었던 능력은?

닥터스트레인저처럼 시공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어요.

2022년 3월로 돌아간다면?

하길 참 잘했다. 힘들긴 했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좋아서 끝나니 입가에서 미소가 싹 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여러명의 예술가들이 함께 진행하다보니 각자의 작업도 있고 개성들이 뛰어나서 내부적인 의견 조율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냥 끊임없는 짬박질하고 대화하는 것.

플레이엄에 참여하며 얻은 것과 잃은 것

얻은 것은 참여자들이 주는 웃음소리와 그로부터 받는 에너지와 그들이 해나가는 작업의 형태를 보고 또 제 작업에 소재나 소스를 얻을 수 있었어요. 잃은 것은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진행하다보니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잃었죠.

나에게 플레이엄이란?

함께 잘 놀았던 시간.

앞으로의 계획?

개인적으론 개인 작업도 열심히 하고 공공 미술 또는 공공 문화 기획에 관련된 것을 참여하고 싶어요.

손으로 말하다

유아와 아동을 돌보느라 나를 돌보지 못한 가족, 돌봄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전통 악기, 미술, 신체 활동으로 마음의 심력을 키우는 예술상담 프로그램



성인

5월 12일 ~ 11월 25일 총43회

봉담읍 문화공간 행복더하기

여덟 번째 이야기



여 뒸 번 째 이 야 기

손으로 말하다 구디프렌즈 이야기실천협동조합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구디프렌즈 이야기실천협동조합 대표 송운주입니다.

손으로 말하다

우리 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컬러는?

저희의 팀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색은 진한 초록색이에요. 진한 초록색은 자연의 에너지도 느낄 수 있고 나무가 숲을 이루었을 때에 상징이 공동체를 나타내기에 생각해보았습니다.

2022년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저희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명 그대로 <손으로 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봄의 빈 공백을 채우느라고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양육과 돌봄이 손으로 이루어지듯이 저희의 예술 교육 활동을 통하여 그 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새 힘을 드리고 싶었어요. <손으로 말하다>는 현(絃)과 형(形), 타(打)로 활동들이 진행이 됐어요. 현 중에서는 가야금과 해금을 배우는 활동이, 타는 타악기 양상블을 진행했습니다. 기능 교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었어요. 또한 손의 조형물로 표현하는 활동이 진행 됐구요. 마지막 시간에는 조형물 전시와 공연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

저희가 상, 하반기 무대에 서는 시간을 드렸는데 참여자 분들이 예쁘게 꾸미시고 주인공으로 섰을 때 그 설레는 표정들 그리고 다 마치고 나서 박수 받으며 보람을 느끼시는 표정들을 보았을 때 기뻐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참여자는?

그동안 육아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잊고 살았는데 활동과 과정을 기록하며 자기를 발견했다는 분이 있었어요. 덩고 비가와도 결석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시고 무대에서 가장 맨 앞에서 연주를 하셨던 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갖고싶었던 (초)능력은?

예지력이요. 돌발 상황이나 장마 때마다 조금 미리 알았다면 더 잘 준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 3월로 돌아간다면?

3월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던 저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의미들을 찾게 될 거고 잘하고 있어.” 라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지친 엄마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의미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힘을 얻고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에 말하고 싶습니다.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협동조합이 작은 규모의 사람들과 함께 기획, 홍보, 디자인, 진행, 행정까지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바빴고 좀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것들을 밖으로 알리는 일이 사실 좀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마케팅 쪽의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게 됐고 계속적으로 배움의 장을 가지고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플레이엄이란?

저에게 플레이엄이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로 놓고 활동을 무대 위에 올리는 작업으로 지역에서 시민들이 예술 교육을 통해 놀 수 있는 놀이터와 같은 시간이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의 계획?

저희의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상군에 대한 조사를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연령군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트스트북 만들기

자신의 일상을 소재로 이야기를 구상하고
책으로 만드는 북아트 프로그램



성인

- # 6월 2일 ~ 11월 13일 총26회
- # 병점동 화성시청년지원센터HEY
- # 영천동 세모네모 살롱카페
- # 반송동 예술실험실
- # 온라인

아홉 번째 이야기



아홉 번째 이야기

아티스트북 만들기

김선호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북아티스트 김선호라고 합니다.

아티스트북 만들기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컬러는?

갈색입니다. 물감으로 갈색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색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색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갈색이 아니라 검은색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갈색을 만드는 과정이 제가 하고 있는 북아트와도 어울리고 제 인생에 대한 태도와도 부합한다 생각합니다.

2022년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아티스트북 만들기〉의 프로그램명으로 북아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여러 종류의 판화 기법을 이용해서 속지를 인쇄 하고 제본 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화성이란 도시에 와서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라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

북아트를 처음 접하시는 참여자들이 많았고 아티스트북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하시다가 후엔 즐기면서 하시게 되어 좋았습니다. 처음에 개념을 잡는 부분을 아무래도 가장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일반 우리가 보는 책과 아티스트북의 차이점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초반에는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책을 그릇에 비유하자면 일반 책은 단순히 그릇에 내용물을 담는 것이고 아티스트북은 그릇도 내용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부분을 함께 공유 한 후에는 즐겁게 참여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갖고싶었던 능력은?

제 욕심과 현실 사이에 인내와 조절이 필요할 때 상황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조바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바심내지 않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함께하는 분이 한 분 더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플레이엄에 참여하며 얻은 것과 잃은 것

얻은 것은 제가 하는 예술의 한 부분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친숙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잃은 것은 프로그램을 완성도 있게 준비하려 보니 제 작업 시간, 개인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아트스트북 만들기

나에게 플레이엄이란?

출발선. 제가 커리큘럼을 짜서 제 작품세계나 분야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처음 가질 수 있어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제 작업을 하며 북아트 커뮤니티를 조금 키워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플레이엄>을 진행을 하면서 공방도 준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공간에 초대해서 같이 북아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들을 열고자 합니다.



외출-나를 위한 특별한 예술 여행

양육자로 애쓰며 살아온 주부들을 위한
연극, 디자인, 미술 프로그램



성인

5월 20일 ~ 11월 4일 총35회

반송동 협동조합 그물코카페



열 번째 이야기

외출-나를 위한 특별한 예술 여행

김진경, 김유정, 조경향

자기소개

저는 디자인 강사 김진경입니다. 동탄 북광장 그물코카페 안에 오이책방지기도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컬러는?

하늘과 바다의 푸른빛처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탁 트이는 색 '블루'입니다.

2022년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외출-나를 위한 특별한 예술여행〉은 엄마들을 자기 발견 시간이에요. 그동안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하면서 자기를 돌보지 못했던 엄마들이 예술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재발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 정작 엄마의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은 못했었고 저 역시 세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자랑 비슷하게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사는 엄마들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쉬는 시간을 마련해보고 싶었어요. 엄마들이 외출을 해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컨셉으로 미술, 디자인, 연극이 결합된 융합 프로그램으로 진행 했습니다. 미술, 디자인, 연극이 결합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보지 않고 자화상 그리기, 물에 폭젓은 종이에 그림 그리기, 대본을 읽고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닌 소꿉장난하듯이 놀기 등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며 쉽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

참여자분들이 예술을 어렵게만 생각을 했다가 “아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어!”라고 얘기하던 그런 순간들이요. 그림을 그린다기 보다 “직선과 곡선을 그려요”라고 말할 때 또 종이를 보지 않고 그릴 때 훨씬 좋은 그림이 나온다는 것을 알 때. 종이와 물과 물감이 그림을 그리는 습식 수채화를 하며 행복해 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며칠 전에 마지막 공연을 마쳤는데 커튼콜 바로 전에 각자 나와서 춤추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자신 있고 행복해 보여서 기뻐했습니다.



뿌듯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사실 첫 회 차에 오시면 “아 ‘외출’은 참 좋은데 ‘예술 여행’이라고 하면 갑자기 좀 당황스럽다”,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스스로 없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뿌듯하고 재밌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참여자가 있나요?

몸을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고 표현하는 것에 어색함을 느꼈던 참여자가 “설거지를 한 번 표현해보자”라고 했더니 설거지통 속 그릇이 된 상황을 표현을 하신분이 있어서 모두 다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물이 되어서 그 사물의 입장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2022년 3월로 돌아간다면?

“걱정 마 생각보다 재밌고 생각보다 잘 굴러가”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엄마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해봤고 셋이서 합을 맞추는 건 또 쉽지 않았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있었는데 막상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보니 참여자들도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저희들 스스로도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그룹 내 의견 조율이 힘들었어요. 서로 다른 분야, 다른 생각을 가진 세 사람이 함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플레이엄에 참여하며

얻은 것과 잃은 것

얻은 것은 동탄에 살고 있는 젊은 엄마들과 친해진 것과 원천세 신고, 계산법을 잘 알게 된 것(웃음) 잃은 것은 개인적으로 그림책 작업할 시간이 없어서 거의 못했어요. <플레이엄>이 거의 일 년을 끌어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플레이엄이란?

오래 생각해왔던 도전 과제를 실행에 옮겼던 열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인색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번 프로그램은 저희에게 18회차 동안 꽤 길게 진행했던 모험의 시간이었고 엄마들이 예술과 친해지며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엄마들과 그리고 연극샘들과 신나게 놀았던 외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이제 사업을 빨리 정산을 마치고 개인적인 글쓰기와 그림책 작업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정하다; DO IT

우정읍에서 펼쳐지는 4가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우정으로 살아요: 중년 부녀자들의 자기 돌봄 소통 프로젝트
- 글로 만난 사이: 읽고(독서) 쓰고(작문) 만드는(제작) 워크숍
- 우정10000화방: 우정의 공간을 현대미술로 탐색하는 중학생 대상 미술 프로젝트
- 끼리끼리 우정마를 탐방하다: 낯선 구도심을 탐방하며 마을과 친해지는 초등학교 대상 프로젝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5월 9일 ~ 9월 27일 총40회

우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삼괴고등학교

열한 번째 이야기



열 한 번 째 이 야 기

우정하다; DO IT 작당모의

자기소개

작당모의는 2021년에 화성에서 시작된 문화적 상상모임으로 시작되었어요. 우연한 기회로 도시재생운영자학교에 함께하게 되었고 멤버 두 분이 추가로 합류해서 지금의 작당모의가 되었어요. 상상에서 실행으로 모임의 성격이 바뀌면서 화성의 로컬문화예술기획자 그룹이라는 정체성도 차츰 생겨나고 있는 그룹입니다.

오가음: 작당모의에서 뒷바라지를 맡고 있는 킷쳐플레이트의 오가음입니다.

차영선: '끼리끼리 우정마을 탐방하다'를 기획, 진행한 차차책과 차영선입니다.

조태경: '우정으로 살아요'를 기획, 진행하고 봉담에서 생각하는 실로 바느질 하고있는 나마네 조태경입니다.

유정임: '글로 만난 사이'를 기획, 진행하고 향남에서 다락이라는 독립서점 겸 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유정임입니다.

최소연: '우정1000화방'을 기획, 진행하고 모니카 스페이스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최소연입니다.

우정하다; DO IT

2022년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우정하다 DO IT'은 화성의 로컬문화예술기획자그룹 '작당모의'에서 함께 기획 운영한 프로젝트로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끼리끼리 우정마을 탐방하다'는 아이들이 내 마을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마을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그런 아이들이 직접 마을을 다니며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0회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마을 주민을 인터뷰하며 마을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우정으로 살아요'는 부녀자들이 우정에 모여서 살게 된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정 친구를 만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집에 가면 또 다른 친구(배우자)가 있잖아요. 그 친구분 하고도 잘 살아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여러모로 동반자가 되는 우정 친구를 만들어서 우정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 '글로 만난 사이'는 글쓰기 프로그램이고요, 총 5회차로 진행했습니다. '우정에서 만난 사람, 장소, 경험'을 주제로 글을 썼고요. 모임에서 같이 읽고 서로의 감상이나 의견을 나누고 참여자 각자 손수 바느질을 해서 만든 책을 실제본을 해서 책 한 권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단 14권뿐인 책이 만들어졌죠.
- '우정만화방'의 '만'은 숫자 '10000'을 의미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현대 미술을 기반으로 한 마을 산책 프로그램입니다. 장안여중 2학년 9명의 아이와 함께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으로 조암이라는 동네가 어떻게 보일까? 궁금했습니다. 다양한 미술 재료를 접했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열한 번째 이야기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

차영선: 처음에는 엄마가 시켜서 왔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어요.”, “왜 10회밖에 안 해요?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 준비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기분이 좋죠.

조태경: 제가 이제 봄 학기 가을 학기 두 번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가을은 모이신 분들은 좀 적었지만 제 진심이 담긴 취지를 눈치를 채시고 “설렁설렁한 프로그램이 아니예요”라고 말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흐뭇했어요.

유정임: 제가 매월 모임 전날까지 각자 쓴 글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메일이 알람이 울리는 순간이 굉장히 설렘고, 파일을 열었을 때 또 한 번 두근거림을 느끼면서 글을 읽어 내려가던 순간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때 느꼈던 기분이 잊히질 않네요.

기억에 남는 참여자가 있나요?

차영선: 2학년 아이였는데, 마지막 날 자랑 인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울면서 문을 나서기를 힘들어했어요. 그 아이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조태경: 결혼을 하고 우정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데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는지 그 스스로 상담받으러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프로그램을 초반에는 우정을 떠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 끝날 즈음에는 “우정에서 조금 더 살아보기로 결심했다. 조금 더 진지하게 옆에 있는 옆지기를 바라보기로 했다”고 얘기를 해주셨을 때 “어! 나 좀 성공한 거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정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학생들 방과후 활동 담당 선생님이 기억에 남아요. 원래는 교실 뒤편에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2회차가 끝날 때 즈음 아이들과 함께 글을 쓰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이 현상이 누군가로 하여금 “나도 글을 쓰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아이들한테 큰 선물이 될 만한 글과 이야기를 남겨주셔서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정하다; DO IT

최소연: 9명 모두가 기억에 남죠. 4회차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저것도 하고 싶어요. 우정에 살아서 이런 것이 좋아요.”라는 이야기까지 해서 제가 마음이 더 갔어요.

그룹으로 진행하며 힘들었던 점은?

유정임: 프로그램을 총 5회차로 진행했고 월 1회 모임을 했는데 그 간격이 너무 넓어서 자칫 좀 지루해지지 않을까, 참여자 분들이 금방 흥미를 잃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모임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연락을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간에 한두 번 불참하는 경우들이 있긴 했지만 다행히 마지막까지 모두 완주를 해주셔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플레이엄에 참여하며 얻은 것과 잃은 것

차영선: 아이들의 마음을 얻었고, 제 시간을 잃었습니다. 오가는 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거든요. 제가 동탄에 사는데 우정읍에서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조태경: 저는 좀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렇게 한 곳만 보고 바느질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보게 되었다는 게 얻은 점이에요.

유정임: 참여자들의 마음속에만 있던 진솔한 이야기를 끌어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성취감과 보람이 가장 크게 얻은 것이라고요. 잃은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참여자 분들이 저한테 보여주신 글에 대한 애정과 모임 시간에 집중하는 모습들,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와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과분하게 받았기 때문에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얻은 것만 가득했던 시간이었습시다.

나에게 플레이엄이란?

오가음: 작당모의 멤버 선생님들과 합을 맞춰서 우정에서 펼쳐볼 수 있었던 기회를 제공해준 ‘아주 고마운 매개’

차영선: 다른 곳에서 해볼 수 없는 프로그램을 열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조태경: 각자 다른 분야에 각자 다른 대상을 모아서 기획, 진행했고 잘 마무리되어서 작은 성공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은.

유정임: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로서의 나의 역할을 시험해 볼 수 있었던 시간

최소연: 잘 놀았다.

앞으로는 계획은?

차영선: 저는 마을을 기록하고 있어요. 글로, 사진으로, 결론적으로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이들처럼 기록했던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조태경: 바느질 하는 기획자로서 제 공간에서 플레이엄을 소소하게나마 진행해보는 게 저의 바람이고 계획입니다.

유정임: 본업인 서점원으로 돌아와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활동들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최소연: 아이들과 아직 연락해요. 단톡방도 그대로 있고요. 아직 고민 중이지만 시즌 2를 기대하고 있어요.

플레이버스 리본

그림책을 기반으로 음악, 영화를 만나고
놀이를 통해 신체로 이어지는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

영유아, 아동, 성인, 노인

5월 26일 ~ 11월 22일 총28회

기산동 꿈길작은도서관

매송면 도담도담작은도서관





열 두 번째 이야기

플레이버스 리본 아트핑거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화예술단체 아트핑거스입니다.

우리 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컬러는?

저희 팀의 여러 장르의 다양한 색깔이 있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별별 초록별’이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초록색 풍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서 오늘은 초록색으로 표현하고 싶네요.

2022년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플레이버스 리본>이고 놀이교육, 놀이예술을 위주로 진행합니다. <플레이버스 리본> 참여자들은 연령층이 다양해서 0세부터 80대까지 영유아부터 어르신들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적 예술 활동을 하게끔 새로운 시도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

첫 시작 때가 가장 설레고 기뻐던 순간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참여자는?

수업했던 아이들 중에 3학년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는 봄에 수업을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저희가 작은도서관 쪽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면 언제나 반겨주고 저희 일도 가끔씩 도와주고 해요. 봄 수업 때도 본인보다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이끌어 주며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예술을 이렇게 놀면서도 배울 수 있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갖고싶었던 (초)능력은?

화성시는 다양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간이동 능력과 그 지역의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능력 두가지를 동시에 얻는다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3월로 돌아간다면?

저희 단체가 화성시문화재단과 처음 교육 사업을 진행해서 모집이나 홍보도 우려가 있었는데 기우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전화위복이 될거야, 걱정하지마 잘될거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의 시도들을 생소하고 낯설어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난 이거 못해, 난 이거 해보지 않아서 난 이거 좀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강사로서 이끌어내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좀 땀이 뻘뻘 나고 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힘들었지만 아주 보람되죠.

플레이엄에 참여하며 얻은 것과 잃은 것
얻은 것은 인연이요.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거 자체로서 큰 얻음이라고 생각해요. 잃은 것은 봄에 파릇파릇할 때 진행을 하다가 끝날 때가 되니까 나이를 먹어갔다는 생각에 그거 하나 빼면 뭐 크게 잃을 건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플레이엄이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요. 다양한 도전을 해보자는 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저희 단체에게도 참 배울 점이 많았던 사업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꾸준히 다양한 기획으로 내실을 갖춰서 새로운 도전의 문화예술교육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더 하고 싶은 말

〈플레이엄〉 이번에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구요. 색다르고 좋았던, 배울 점이 많았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저희 단체와 화성시문화재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 께 PLAYEUM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플레이엄

ART + PLAY + MUSEUM = PLAYEUM

함께

PLAYEUM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플레이엄

사전 간담회

일정

1월 25일 ~ 1월 26일 3회

내용

사업 계획 수립 전 관내 예술가, 예술교육자 대상 의견 수렴



1차



2차



3차

사업 설명회

일정

3월 3일 2회

내용

지원사업 공고관련 <플레이엄> 사업 목적 및 지원 일정 설명

중간워크숍

일정

7월 25일

내용

프로그램 세부 내용 공유 및 예술교육자 네트워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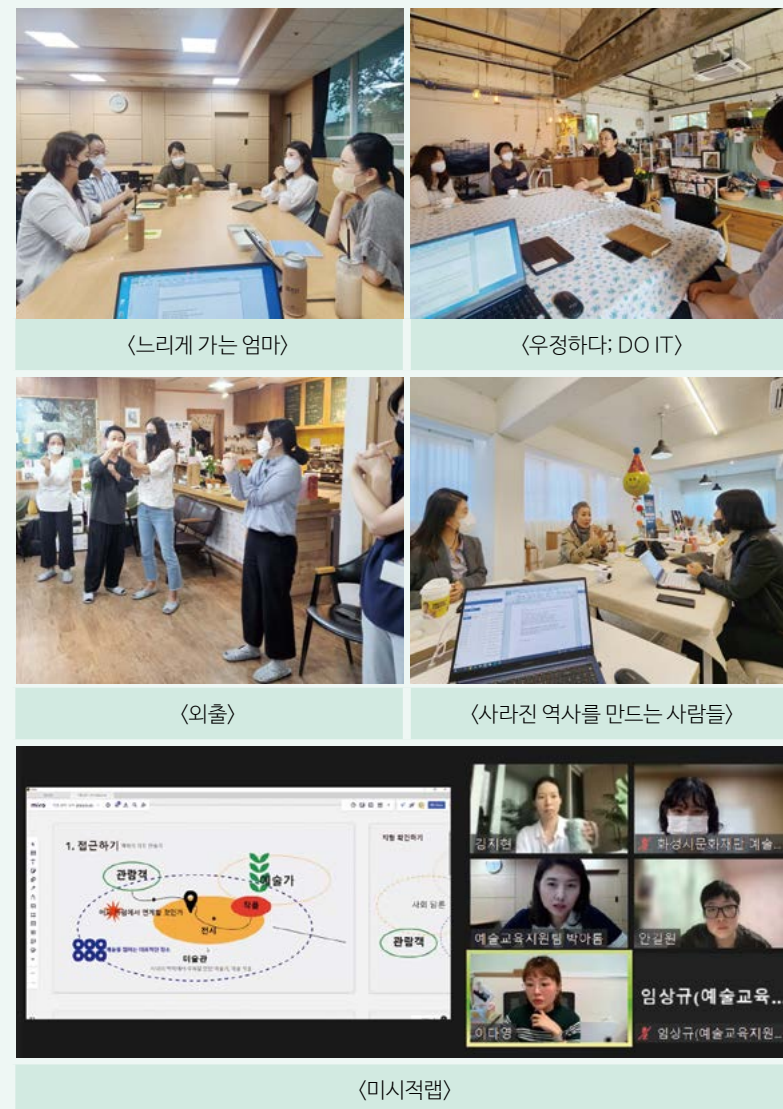
전문가 자문

일정

7월 27일 ~ 10월 25일 11회

내용

프로그램별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예술의 지속성 관련 일대일 전문가 자문 진행



첫 번째 특강

일정

8월 4일

내용

생애주기 속 예술교육 / 김태희 바라컬처스랩 대표



두 번째 특강

일정

8월 10일

내용

지원사업 회계·정산 / 한미회계법인



결과워크숍

일정

12월 5일

내용

2022년 사업 결과 결과 공유 및 발전 방향 나눔



숫자로 보는 2022년 주요 결과

프로그램 운영횟수

총 **442**회



12개
프로그램 지원



15개
세부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참여현황

참여 예술교육자

35명



화성시민 수혜

429명



누적 참여

4,261명



현장 모니터링

43회

전문가 자문

11회

특 강

2회

다시, 시작

PLAYEUM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플레이엄

ART + PLAY + MUSEUM = PLAYEUM

다시,

시작

사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플레이엄>의 처음을 준비했던 2021년 10월은 90%의 불안함과 10%의 기대감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예술가, 예술교육자,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예능 교육에서 탈피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함께 공감 해주실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월 프로그램을 현장을 만나며 불안한 마음은 자연스레 흘러갔습니다. 녹록치 않은 운영이었지만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올해 35명의 다양한 예술가가 좋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함께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시민들의 내일과 1년 후가 그리고 10년 후의 삶이 바뀔 것을 기다리며 “그때 내가 플레이엄에 참여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고 다행이다”라고 말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기대 90%와 기분 좋은 긴장 10%로 2023년을 좋이 준비하겠습니다. 처음을 함께해주신 예술교육자를 응원하며 더 좋은 모습으로 내년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함께할 재밌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Let's PLAYEUM!

예술교육지원팀 박아름

Let's Playeum

2022년은 플레이엄을 통해 한 발자국 성장할 수 있었던 해였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어렵지만 특히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는 저에게는 더 큰 부담이었고, 걱정이었습니다. 저의 걱정과 소심함은 박아름 대리님의 기획력, 추진력에 이끌리며 믿음으로 바뀌었고, 플레이어(예술가)분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적극적으로, 또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플레이엄을 함께하며 플레이어(예술가)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듬뿍 받아 제 자리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함께 스며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많이 서툴고 어색했지만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플레이엄>은 1년이 된 지금 제게 고유명사로 남아있습니다. 플레이어 분들께도, 함께 해주신 시민 분들께도 <플레이엄>이 고유명사로 자리 잡길 희망하고 응원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Let's PLAYEUM!

예술교육지원팀 강민서

2022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플레이엄
결과 자료집

2022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플레이엄

결과 자료집

발행일 2022. 12.

발행처 화성시문화재단

발행인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종대

총 괄 예술교육지원팀 팀장 임상규

기 획 예술교육지원팀 박아름

지 원 예술교육지원팀 김희영, 신혜선, 강민서

디자인·인쇄 디자인타임 031-223-6062

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화성시문화재단

031-290-4691

hcf.or.kr

2022 화성시문화재단

본 자료집은 화성시문화재단 예술교육지원팀 2022년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플레이엄>에 관한 기록과 보존을 위해 화성시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본 결과자료집에 실린 글과 도판은 화성시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